

牧童問答歌(목동문답가)

任有後(임유후)

[1]

녹양방초(綠楊芳草) 안에 소 먹이는 아이들아
 인간영락(人間榮樂)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생백년(人生百年)이 풀 끝에 이슬이라
 삼만육천일(三萬六千日)을 다 살아도 초초(草草)커던
 수단(壽短)이 명(命)이어나 사생(死生)을 결(缺)할소냐
 생애(生涯)는 유한(有限)하되 사일(死日)은 무궁(無窮)하다
 역려건곤(逆旅乾坤)에 부유(浮游)같이 나왔다가
 공명(功名)도 못 이루고 초목(草木)같이 썩어지면
 공산백골(空山白骨)이 그 아니 느껴우냐
 시서백가(詩書百家)를 자자(字字)히 외워 내어
 공맹안증(孔孟顏曾)을 일마다 법 받으며
 직설(稷契)¹⁾을 기필(期必)하고 요순(堯舜)을 비겨 내어
 강구연월(康衢煙月)²⁾에 태평가(太平歌)를 불러 두고
 사해팔황(四海八荒)을 수성(壽域)에 올리기는
 이음양순사시(理陰陽順四時)³⁾
 재상(宰相)의 사업(事業)이요
 백만군병(百萬軍兵)을 지휘(指揮)중에 넣어두고
 풍운(風雲)을 부쳐 내어 우주(宇宙)를 흔들기와
 장검(長劍)을 비끼 잡아 만적(蠻狄)을 당하기와
 자수금인(紫綬金印)을 허리 아래 비끼 차고
 황룡부(黃龍府)에 통음(痛飲)⁴⁾하고
 능연각(凌煙閣)에 화상(畫像)⁵⁾하니
 위권(威權)이 혁혁(赫赫)하여 오정식(五鼎食)⁶⁾에 누리기는
 장수(將帥)의 모략(謀略)이라 그 아니 기특하냐

향기로운 풀 속에서 소 먹이는 아이들아
 인간의 영화를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인생 한 평생은 풀잎 끝의 이슬이라.
 백년을 다 살아도 근심이 이어지니
 오래 살든 일찍 죽든 모두가 운명이나
 삶은 유한하되, 죽을 날은 끝이 없다.
 이 세상 나그네로 떠돌이로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가면
 빈산에 백골 되니 그 아니 북받칠까.
 시경 서경 백가서를 글자마다 외워 내어
 공자 맹자 안회 증삼 일마다 배우면서
 직설되기 바라옵고 요순을 본받으며
 태평한 시절에 태평가를 부르면서
 조상이 이룬 온 세상을 지키면서
 음양을 다스리고 네 계절에 순응하며
 재상 일을 맡았거나
 백만 군사 지휘하여
 바람 구름 불러내어 우주를 흔들거나
 큰 칼을 비껴 잡고 오랑캐를 무찌르거나
 수놓은 금 도장을 허리 아래 비껴 차고
 황룡부를 공격하여 통쾌하게 부수거나
 큰 공 세워 능연각에 화상으로 걸리거나
 위세 권력 뚜렷하여 진수성찬 누리기는
 장수의 계책이니 그 아니 기특할까.

1) 순 임금 대의 명신.

2) 변화한 큰 길거리에서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이르는 말.

3) 음양을 다스리고 사계절에 순응한다.

4) 송나라 장수 악비가 금나라 수도 황룡부를 공격을 준비하며 부하들에게 한 말. “우리들은 황룡부를 공격하여 통쾌하게 마셔버릴 것이다(直抵黃龍府, 與諸君痛飲爾).”

5) 당태종이 공신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24명의 초상을 능연각에 걸어둔 일.

6) 제후의 진수성찬으로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생선, 사슴고기를 이룸.

[2]

내 재조(才操) 편견(偏見)하여 장상(將相)이 못되어도
 금수간장(錦繡肝腸)⁷⁾에 만고(萬古)를 넣어두고
 풍운월로(風雲月露)⁸⁾를 붓 끝에 희롱(戲弄)하니
 주기(珠璣)를 헤치는 듯 백벽(白壁)이 뒤트는 듯
 귀신(鬼神)을 울리는 듯 풍우(風雨)를 놀래는 듯
 문채(文彩)도 가잘시고

단계화(丹桂花) 한 가지를 소년(少年)에 꺾어 꽃고
 향가(香街) 자맥(紫陌)⁹⁾에 영총(榮寵)이 그지없다
 금문(金門) 옥당(玉堂)에 문한(文翰)으로 누리다가
 석실금櫃(石室金櫃)¹⁰⁾로 만세(萬歲)에 유전(遺傳)하면
 소 먹이는 저 아이야 그 아니 즐거우냐

하늘이 사람 낼 제 나라이 사람 쓸 제
 귀천(貴賤)을 가리더냐

하늘이 삼긴 몸을 닦아 내면 사군자(士君子)요
 기포(棄袍)¹¹⁾를 달게 여겨 던져두면 우하(愚下)로다

내 재조(才操) 가지고 한 몸만 용차(用借)하니
 회보미방(懷寶迷方)¹²⁾을 세상(世上)이 뉘 알더냐
 자세히 들어스라 손꼽아 이르리라

이윤(伊尹)은 술을 지고¹³⁾ 부열(傅說)¹⁴⁾은 달고 들고
 영척(甯戚)¹⁵⁾ 백리해(百里奚)¹⁶⁾는 소 치다가 명현(明顯)하니
 가난하고 천하기는 이 사람만 하라마는

인생(人生) 궁달(窮達)이 귀천(貴賤)이 아랑곳가
 불식(不識) 부지(不知)하여 세사(世事)를 모르는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험 밖에 던져두고
 연교(連翹) 초야(草野)에 소치기만 하나스다

내 재주 부족하여 장수 재상 못되어도
 예전의 좋은 글귀 모두 다 익혔다가
 화려한 글재주를 붓 끝으로 희롱하니
 구슬을 헤치는 듯 흰 벽을 뒤트는 듯
 귀신을 울리는 듯 비바람을 놀래는 듯
 글 솜씨도 갖추었네.

어사화 한 가지를 소년 시절에 꺾어 꽃고
 뽐내며 거리 노니니 임금 은혜 끝이 없고
 대궐 안 옥당에서 글 지으며 누리다가
 책방에서 벼슬하다 후세까지 이어지면
 소 먹이는 저 아이야 그 아니 즐거우랴.

하늘이 사람내고 나라가 사람 쓸 때
 귀천을 가리겠나.

하늘이 내린 몸을 닦아 내면 군자이나
 제 몸을 버려두면 어리석게 되는 것을.

내 재주 가지고 이 한 몸만 위해 쓰면
 세상 구할 보물 뒹을 세상에서 어이 알까.
 자세히 들어보게. 손꼽아 이르리라.

이윤은 술을 지고 부열은 달구지 들고
 영척과 백리해는 소치다가 등용되니
 가난하고 천하기가 나만이야 하라마는

인생의 귀천을 아랑곳하여 살아갈까.
 생각 없고 알지 못해 세상일을 모르는가.
 출세하여 이름 날림을 생각 밖에 던져두고
 개나리 핀 풀밭에서 소치기만 하고 있다.

7) 시문이 뱃속에 가득해서 좋은 구절을 잘 지어냄. 이백의 심간(心肝)과 오장(五臟)이 모두 금수(錦繡)로 되어 있는 것 같다든 말에서 나옴.
 8)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만 화려한 시문.
 9) 향가자맥춘성내(香街紫陌春城內) 만성견자수불애(滿城見者誰不愛). 향기로운 서울 거리 봄 성 안에 있으니, 못 백성과 군자 누군들 사랑하지 않겠는가. 당나라 시인 장삼(岑參)의 글귀.
 10) 쇠로 만든 상자와 돌로 만든 방으로 책을 엄중하게 간직하는 곳.
 11) 할수기포(割鬚棄袍). 수염을 자르고 도포를 버린다는 뜻으로, 정신없이 황망히 도망가는 경우를 이룸.
 12) 회보미방(懷寶迷邦). 어지러운 나라를 구할 보물을 간직함
 13) 은나라 이윤(伊尹)이 술을 지고 탕왕(湯王)을 따라다니며 격려한 끝에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는 고사.
 14) 은나라 고종(高宗) 때 재상으로 등용되어 토목, 공사 등에서 대업을 이루었음.
 15) 춘추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수레를 끌어주면서 살았는데, 소의 뿔을 두드리며 '백석가(白石歌)'를 불렀는데, 제나라 환공이 듣고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눈 뒤에 현자인 줄 알고 대부(大夫)로 삼았다고 함.
 16) 진나라 사람으로 소를 기르다가 목공(穆公)에게 기용되어 그의 패업을 이루게 했다고 함.

[3]

목동(牧童)이 대답(對答)하되 어와 그 누구시고
 우은 말씀 듣건지고
 형용이 고고(枯槁)하니 초대부(楚大夫) 삼려(三閭)¹⁷⁾신가
 잔혼(殘魂)이 영락(零落)하니 유학사(柳學士) 자후(子厚)¹⁸⁾신가
 일모(日暮) 수죽(修竹)에 혼자 어둑 서 계셔서
 내 근심 던져두고 남의 분별(分別) 하시려고
 우리는 준준(蠢蠢)하와 대도(大道)를 모르어도
 인생(人生)도 저러하다 소치기 아나이다
 송아지 어이 좃아 녹음(綠陰)간에 절로 내어
 이리가락 저리가락 누으락 일어나라
 풀 잔디 뒤져 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
 먹음먹이 박하여도 제 뜻대로 노닐기와
 꺾도래 코에 꿰어 저 꼬삐 굳게 잡아
 곧은 낚대 삶은 콩을 배가지 칠지라도
 불 같은 더운 별에 한겨리 마주 메워
 코춤은 커니와 흘게도 그지없다
 어느 소는 고되고 어느 소는 한가하뇨
 일시에 빛나가야 희생(犧牲)만 할 건가¹⁹⁾
 헌 덕석 벗기치고 금의삼정(錦衣三丁) 갈아 덮어
 샷구레 벗기치고 홍사(紅絲)로 엮어내어
 대로(大路)에 벽제(辟除)하고 예관(禮官)이 고삐 잡아
 태묘(太廟)로 들어가서
 포정[庖丁]의 큰 도채에 골절(骨節)이 제곱나니
 저더러 물어 보면 어느 소 되랴할고

목동이 대답하되, 어와 그 누구신가.
 우스운 말 듣겠구려.
 야위어 파리하니 초나라의 굴원인가.
 혼백이 시들었으니 학사 유종원인가.
 해 지는데 대 기대어 혼자 우뚝 서 있어서
 자기 근심 던져두고 남의 걱정 하시는가.
 우리는 어리석어 큰 도를 모르지만
 인생이 저러하니 소치기는 아나이다.
 송아지 어찌 좃나, 나무 그늘 내어 놓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누워라 일어나라
 풀 잔디 찾아 먹이고 시냇물 흘러 마셔
 먹이가 부족해도 제 뜻대로 놀게 하고
 코뚜레 코에 꿰어 저 꼬삐 굳게 잡아
 곧은 낚시대 삶은 콩으로 배 채우게 할지라도
 불같은 더운 별에 쟁기를 마주 매니
 힘들기는 물론이나 여유도 끝이 없네.
 어느 소는 고되고 어느 소는 한가한가.
 일시에 빛을 내어 희생만 시키겠나.
 헌 덕석 벗겨내고 새 덕석을 갈아 덮고
 수구레 벗겨내고 붉은 실로 엮어매고
 대로에 사람 금하고 예관이 고삐 잡아
 종묘에 들어가서
 백정의 큰 도끼로 뼈들을 흩어지니
 저더러 물어 보면 어떤 소가 되오리까.

17)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이자 비극시인인 굴원(屈原). 어부사(漁父辭)의 작가
 18) 당나라의 문학자·철학자인 유종원(柳宗元)
 19) 칼 등으로 소를 잡는다는 뜻인 듯.

4
 고금(古今)에 어질기야 공부자(孔夫子)만 할까마는
 광인(匡人)이 욱보시고 진채(陳蔡)에 쌓이시어²⁰⁾
 목탁(木鐸)이 되여겨사 도로에 늪으시니
 전 사람 이른 말이 그 아니 옳았던가
 부차(夫差)의 촉루검(蜀鏃)을 오자서(伍子胥)²¹⁾를 준단 말가
 서산(西山)저문 날에 비풍(悲風)이 소슬(蕭瑟)하다
 무안군(武安君) 백기(白起)²²⁾는 이룬 공도 하건마는
 두우역(杜郵驛) 하라 나재 칼을 주어 죽이더고
 이사(李斯)는 승상(丞相)으로 보수(保守)를 다한 후에
 부귀(富貴)도 극진(極盡)하고 영총(榮寵)도 무한터니
 상채(上蔡) 동문(東門)에 누런 개를 슬퍼하네²³⁾
 나는 새 진(盡)한 후면 양궁(良弓)이 장(藏)하이고
 토끼를 잡은 후에 사냥개 아랑곳가
 한신(韓信)의 공적(功績)으로 삼족(三族)조차 죽이더고²⁴⁾
 문인(文人)은 예로부터 궁상(窮狀)이요 박명(薄命)이라
 만장광염(萬丈光炎)²⁵⁾이 뉘 뒤들 일까마는
 고신거국(孤臣去國)에 야랑(夜郎)²⁶⁾이 몇 천리(千里)요
 성도초당(成都草堂)²⁷⁾에 성계(城階)도 소조(蕭條)하다
 한창려(韓昌黎) 문장(文章)으로 동정춘풍(洞庭春風)에
 물결이 일어나니²⁸⁾
 조주(潮州) 팔천리(八千里)에 고국(故國)이 어드메오²⁹⁾
 지하(芝荷)로 옷을 하고 난초(蘭草)로 섞어 차고

고금에 어질기야 공자만큼 할까마는
 그 밝은이도 욱보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며
 어진이가 되었어도 거리에서 늪었으니
 옛 사람 이른 말이 그 아니 옳았던가.
 부차가 촉루검을 오자서에 내렸으니
 서산 저문 날에 슬픈 바람 쓸쓸하다.
 무안군 백기는 이룬 공도 많건마는
 두우에서 사자에게 칼을 받아 죽었던고.
 이사는 승상으로 큰 공을 세운 후에
 부귀도 극진하고 영화도 무한하더니
 상채의 동문에서 누런 개를 슬퍼하네.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은 필요 없고
 토끼를 잡은 후에 사냥개를 아랑곳할까.
 한신은 공을 세워도 삼족까지 죽더라고.
 문인은 예로부터 궁하고 박명하니
 불꽃처럼 오르면 뉘 뒤인들 그를까마는
 이백은 야랑으로 유배되니 몇 천리이고
 두보가 채소 키우던 초당은 쓸쓸하네.
 한유는 문장으로 동정호에서 봄바람으로
 물결을 일으켰으나
 조주 팔천 리에서 고향을 찾았구나.
 마름으로 옷을 짓고 난초를 섞어 치니

20) 진채지액(陳蔡之厄). 인생의 어려운 때를 일컫는 고사성어로 기원전 489년 열국을 주유하던 공자(孔子)가 쑤나라와 채나라를 거쳐 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당한 고통에서 유래함.

21) 오자서(伍子胥)가 초나라에 부형의 원수를 갚고자 했으나 오나라의 왕 부차에게 촉루검을 받고 자결하여 뜻을 이루지 못함.

22) 공손기(公孫起). 전국 시대 말기 진나라 사람으로 용병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나 진 소왕과의 갈등으로 두우에서 자결함.

23) 이사(李斯). 상채(上蔡) 사람으로 진나라의 천하통일 대업을 이끌어내고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림. 황제가 병사한 뒤 권력다툼 과정에서 환관 조고의 모략에 걸려들어 허리를 베어 죽이는 형을 당했는데, 둘째아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너와 함께 다시 누런 개를 끌고 상채 동문 밖으로 나가 토끼를 쫓고 싶지만 이미 틀렸구나.(牽犬東門 豈可得乎)” 하고 통곡함.

24) 한나라 초의 무장으로 초나라의 항량·항우를 섬겼으나 중용되지 않아 한왕 유방의 수하가 되어 대장군이 됨. 후에 모반죄로 체포되어 장안으로 압송되었는데, 이때 한신은 유방을 원망하며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말을 남김. 다시 반란을 공모했다고 모함 받아 참살됨.

25) 한유(韓愈)의 시. 불꽃이 萬丈(만장)이나 오름.[光燄萬丈長]. 시문이 대단히 힘 있을 때 칭찬하는 말.

26) 이백이 반란군으로 지목되어 야랑으로 유배되었을 때를 말함.

27) 두보가 안사의 난을 피해 성도에서 오두막을 짓고 성도초당(成都草堂)이라고 하고, 정원을 꾸미고 채소밭을 일구었던 것을 말함.

28) 한유(韓愈)의 시. 봄바람이 동정호에 물결을 일으키니 외로운 배가 놀라네. [春風洞庭浪, 出沒驚孤舟]

29) 한유가 현종이 궁중에서 불공을 올리려 하자 부처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간언하였고, 현종은 크게 노하여 조주 자사로 좌천시킴.

이소(離騷) 구가(九歌)³⁰의 문자(文字)는 좋건마는
 초강(楚江) 밝은 달에 한원(寒猿)이 슬피 우니
 장수(將相) 문장(文章)이 그 아니 섬겨우나
 산중(山中)에 사향(麝香)노니 깊이는 있건마는
 춘풍(春風)이 헌사하여 향내를 불러내니
 산하(山下)에 날랜 살을 면하기 어렵거든
 군미끼 활낙시를 어이하여 따르느냐
 기산(箕山)에 귀 씻기와 상류(上流)의 소 먹이기
 즐겁고 즐거움을 너희는 모르리라
 내 노래 한 곡조(曲調)를 불러든 들어 보소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풍진(風塵)이 아득하다
 부귀(富貴)는 부운(浮雲)이요 공명(功名)은 와각(蝸角)³¹이라
 이 통소 한 곡조(曲調)에 행화촌(杏花村)을 찾으리라³²

이소 아홉수에 문자는 좋지마는
 외로운 원숭이 초강에서 슬피우니
 장상의 문장이라도 어찌 섬기겠나.
 산중에서 사향노루 깊이는 있건마는
 봄바람이 대단하여 향기를 일으키니
 산 아래의 날랜 화살 면하기 어렵구나.
 덧미끼에 활낙시를 어이하여 따르느냐.
 기산에서 귀를 씻고 상류에서 소먹이기
 이러한 즐거움을 너희는 모르리라.
 내 노래 한 곡조를 불러보니 들어보소.
 장안을 돌아보니 티끌이 아득하다.
 부귀는 뜬구름이요, 공명은 사소하니
 이 통소 한 곡조에 한 잔 술을 마시리라.

30) 굴원(屈原)이 지은 서정시. 궁궐에서 쫓겨난 후 실망하여 썼다 함.

31) 달팽이의 뿔. 달팽이의 두 뿔 위에 만(蠻)과 촉(觸) 두 나라가 서로 다투는다고 하여 곧 사소한 일로 다툼을 말함.

32) 살구꽃 핀 마을로 주막이 있는 마을을 뜻함. 유호인(俞好仁)의 시 “太守遊春勤勸課 肩輿時入杏花村(태수의 봄놀이는 농사를 권함이지만, 때로는 가마 타고 주막집도 찾아드네.)”